‘BBK 의혹’ 풀다 만 수수께끼는

도곡동 땅 주인 미스터리로

‘BBK 회장·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논란 남아

“李후보에 유리한 진술땐 감형” 메모도 공방

검찰이 5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및 ㈜다스·BBK 실소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이 후보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가 아니라 김경준씨가 허위로 주장하거나 정치권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혹시 있을지 모를 이 후보 돈의 흔적’을 찾는 수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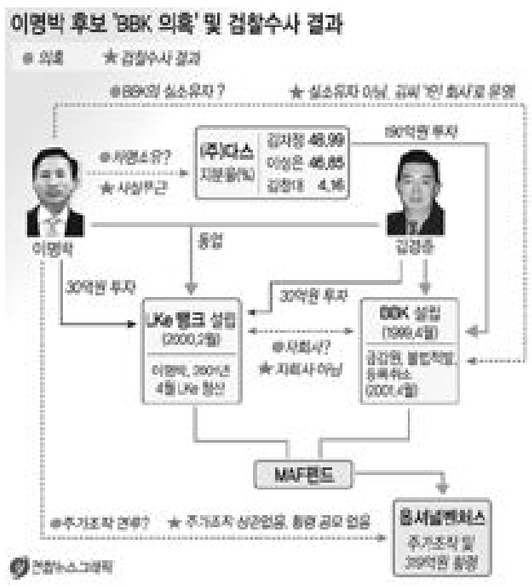
수수께끼로 남은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 검찰은 지난 8월 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후보 처남인 김재정씨의 지분은 본인의 것이지만 이 후보 맏형인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었다.

실소유주는 자금관리인 등 핵심 참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당시 설명이었다.

검찰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기엔 충분한 수사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들 핵심 참고인이 조사에 적극 응했음에도 김홍일 3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은 이미 처리됐고, 이번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의혹은 아니었다”고 똑 떨어지는 대답을 하지 않아 ‘누가 진짜 주인인지’는 미제로 남았다.

이 후보가 2001년 당시 ‘BBK 회장·대표이사’라고 기재해 사용한 명함도 논란으로 남을 것 같다.

이장춘 전 대사가 “2001년 5월30일 이 후보 소유의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받았다”며 공개한 명함에는 ‘BBK투자자문주식회사.LKeBank. eBANK증권주식회사’라는 문구 위에 한자로 ‘李明博(이명박) 會長/代表理事(회장/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다.



이상은씨의 ㈜다스 지분도 애매하다. 이씨의 도곡동 땅 판매금 7억여원이 ㈜다스로 들어갔는데 8월 수사 때 이씨 소유가 아니라고 검찰이 발표했기 때문. 김 차장검사는 “도곡동 땅 소유자는 땅값을 내거나 땅 판 돈을 쓴 사람인데, 땅을 살 때 돈을 낸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계좌추적 기간이 5년 밖에 안돼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해 자금원을 캐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BBK 투자자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두 이 후보와 연관이 있다는 점도 의문부호가 붙게 한다. 수사발표 전날 등장한 “검찰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김씨 메모도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 광주시당 당원 100여명이 5일 오후 광주고·지검 청사앞에서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진보 “짜맞추기… 전면 재수사를”

보수 “공작정치…범여·昌 사과를”

■ BBK 수사결과 입장 엇갈려

5일 ‘BBK 주가조작 및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이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전남 진보연대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고·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BBK수사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줄서기 수사에 다름 아니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진보연대는 “검찰이 BBK사건과 관련, 유력 대선 후보의 주가 조작이나 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 검찰’의 꼬리표를 뗄 수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성명에서 “검찰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 신분 또는 기소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남몰래 서면조사’를 벌인 것”이라며 “특정 대선 후보의 이름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검찰의 이른바 ‘형량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 당직자와 선대위 관계자들도 이날 광주고·지검 청사 앞에서 ‘BBK 은폐 정치검찰 규탄대회’를 갖고 수사결과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광주시당은 “그동안 신당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핵심인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라고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즉각 이 후보를 소환조사하고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도 김경준씨의 입국을 반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검찰의 BBK 부실수사 및 이 후보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 7시 보신각 앞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뉴라이트대학생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일부 정치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BBK주가조작 사건은 2001년 검찰조사를 통해 김경준 씨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BBK사건의 본질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작정치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의혹을 부풀리는 데 여념이 없다. 검찰은 BBK 사건의 단독범죄자인 김씨를 강력히 처벌하라”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남선대위는 성명을 통해 “BBK 의혹은 결국 ‘헛방’이었다”며 “공작정치를 한 범여권과 이회창 후보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경준 공세→홍종국 소방수→李후보 무혐의

■ 반전 거듭한 ‘BBK 공방 드라마’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5일 수사결과 발표로 김경준씨 송환 이후 20일간 이어진 ‘BBK 공방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20일을 돌이켜보면 처음엔 김씨의 ‘이면계약서’ 제시로 이 후보 쪽이 위기에 처하는 듯 했지만 홍종국 전 e캐피탈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펴고 나서면서 다시 김씨가 수세에 몰리는 등 롤러코스터식의 극적 반전이 계속됐다.

◇김경준의 공세로 시작된 ‘진실게임’=예상과 달리 여유있는 웃음까지 띠어가며 입국한 김씨 측은 이 후보가 BBK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선제 공세에 나섰다.

송환 다음날인 11월 17일 김씨가 내뱉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온 게 있다”는 단 한 마디에 정치권은 크게 출렁였다. 이어 김씨 어머니 김영애(71)씨가 11월 23일 입국해 이면계약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침묵하던 홍종국이 ‘소방수’=수세에 몰린 이 후보 측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준 것은 뜻밖에도 BBK 투자자문의 초기 투자가인 홍종국 전 e캐피탈 대표였다.

BBK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잠잠히 있던 홍 전 대표는 11월 29일부터 “1999년 9월 BBK에 30억을 투자해 지분 99%를 갖게 됐고 절반을 한두 달 뒤 김씨에게 판 뒤 나머지는 2000년 2월 28일 이후 김씨에게 넘겼다”라고 주장했다. 반색한 한나라당은 “그 동안 제기됐던 후보에 대한 의혹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라고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섰다.

◇‘검찰 회유’ 메모 파문=하지만 수사결과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둔 4일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의 김씨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꺼진 듯한 불씨에 다시 기름이 부어진 형국이 됐다.

검찰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에 파장은 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즉각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5일 검찰은 이 후보에게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BBK 공방 드라마’의 종지부를 일단 찍었다. /연합뉴스

■김씨, 왜 李후보 공범으로 선택했나

美 민사소송서 유리한 입지 포석

“김경준이 우리 법제를 잘 모른다. 가짜 이면계약서 하나만 달랑 가져오면 이명박 후보를 부를 줄 알았던 거지.”

5일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에 연루된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직전 이번 수사에 정통한 한 검찰 관계자가 황당하다는 듯 혀를 차며 털어 놓은 말이다.

김씨는 자신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대선 정국을 송환 시점으로 택해 이 후보를 ‘BBK 사건’으로 엮으려 했지만 자금추적 등 물적 증거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 한국 검찰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이면계약서를 제시하면 검찰이 이 후보를 소환해 자신과 대질조사를 벌이는 등 송환과 동시에 ‘김경준 대 이명박’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한국 검찰의 수사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그렇다면 왜 김경준씨가 이면계약서 같은 가짜 증거까지 들이밀며 유력 대선 후보를 공범으로 몰고가는 무리수를 둔 것일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의 이런 행동이 수백억대 재산의 향배를 놓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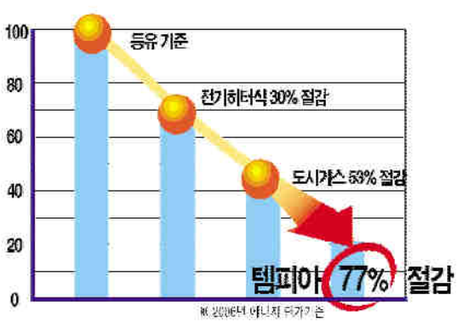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환급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국가+지방직 시험대비, 동계방학 大 강좌! =
7·9급 공무원 완전대비
강좌안내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검측직 물리학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2월 17일 주·야 (종합단과)반 모집 (현재 예약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12월 3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란? 전문대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1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김영편입·PMS학원(광주동부경찰서뒤) ☎ 227-8088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난방기
난방비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템피아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구입방법
▸ 업계 최초 템피아 특별 리스로 기본계 보증금 10% 납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무이자 할부 판매(12개월)
▸ 삼성, 대우, 기은캐피탈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항온가습기 공기청정기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15평~160평형)
벽걸이형 에어컨(6, 8, 10평형)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062) 955-4222 080-701-7117